

도피이론으로 검증한 성인 초기 여성의 완벽주의, 자존감 그리고 물질주의 추구*

설 경 옥[†] 박 민 경[‡] 안 은 지 김 지 영 백 상 은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는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Donnelly 등 (2016)이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물질주의 과정을 설명한 6단계 중 1단계를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높은 삶의 기준을 갖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2단계를 완벽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 혹은 평가하게 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개념화하여 성인 초기 여성이 물질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물질주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성인 초기 여성 571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네 번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초기값 간 매개 경로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높은 물질주의를 보였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변화율을 매개로 물질주의 변화율을 예측하는 종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존감 변화율이 물질주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물질주의 추구 경향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인 초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요 변인인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물질주의, 자존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도피이론, 병렬과정 매개모형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FR-2015S1A5A8016469).

†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학동 11-1

Tel: 02-3277-3918, E-mail: koseol@ewha.ac.kr

‡ 2저자와 3저자의 기여도 동일, 4저자와 5저자의 기여도 동일

도피이론(escape theory)은 자살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Baumeister(1990)가 제시한 이론이다. 그는 자살을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자살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나누었다. 최근 Donnelly, Ksendzova, Howell, Vohs & Baumeister(2016)는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이 자기에 대한 혐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물질주의는 돈이나 물질이 삶의 중심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자,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기는 가치이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 추구과정을 도피이론으로 설명하면 물질주의자는 1단계에서 자신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한 삶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다른 사람보다 열망의 좌절을 더 잘 경험하고, 2단계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신을 부족하다고 간주하거나 비난하게 된다. 앞 단계의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 설정,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자기비난으로 인해 3단계에서는 개인이 자기로부터 도피하고 싶게끔 하는 부정적 자아 경험인 자의식(self-awareness)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4단계에서 정서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5단계에서 혐오스러운 감정과 자기인식을 줄이기 위해 협소하고 인지적으로 해체된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6단계에서는 부적응적인 소비행동과 물질에 대한 집착 같은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비이성적인 행동 양식으로서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된다(Donnelly et al., 2016).

도피이론은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심리적 과정과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만, 아직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Donnelly et al., 2016). Donnelly 등(2016)의 도피이론으로 설명한 물질주의 모형에서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높은 삶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1단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완벽주의, 과도한 사회비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제시하였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부

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 혹은 평가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2단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기비난, 낮은 자존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설명하는 도피이론 모형 6단계 중 1단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2단계 낮은 자존감이 물질주의 추구로 연결되는 과정을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완벽주의와 물질주의

Hewitt와 Flett(1991)은 개인이 어떤 대상에게 완벽주의적 행동을 요구하는지 혹은 완벽주의적 행동의 기준을 누가 부과하는지에 따라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타인지향 그리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여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성향으로 높은 자기통제력, 긍정 정서와 정적 상관성이 있어 “적응적” 완벽주의로 부르기도 한다(전명임, 이희경, 2011;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이고 높은 기준을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하여 타인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성향으로 이로 인해 개인은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적대감을 드러낸다. 반면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사회나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해지길 요구한다고 지각하여 자신에게 사회나 타인이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성향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자신의 가치나 수행을 엄격히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분노,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일으킨다(전명임, 이희경, 2011; Hewitt & Flett, 1991). 이 연구에서는 도피이론 1단계에서 제시한 개인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지니고 그 기준으로 평가받겠다고 지각하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성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개념화하여 검증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와 물질주의자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두 집단 간 유사성이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는 자신, 자신과 타인의 수행, 그리고 삶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갖는데, 물질주의자 또한 돈과 물질의 이상(ideals)을 기초로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Sirgy, 1998). 명품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자와 물질주의자의 소비 형태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완벽주의적인 소비자들은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중시하여 명품을 더 선호한다(Lee & Hwang, 2011). 물질주의자들 또한 자신의 소유물을 자기 정체성이나 지위와 연결 짓기 때문에(Belk, 1985) 최상의 품질을 찾기 위해 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Lysonski & Durvasula, 2013),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의미로 명품을 더 선호하며 명품 소비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Lee & Hwang, 201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의 관련성은 중독이나 이상섭식 연구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일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운동중독과도 상관이 있다(오현옥, 2011; 정인호, 이은진, 2013). 물질주의는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강박적 구매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브랜드 중독과 브랜드 의존성을 예측한다(조규준, 송수진, 2017; Dittmar, 2005).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섭식 통제나 폭식증을 예측하는 주요 성격 변인이다(Bardone-Cone, 2006). 물질주의 역시 외모주의, 사회비교, 신체 불만족의 심리적 기제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이처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는 서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물질주의를 직접적으로 예측한다는 경험적 근거는 없다.

자존감의 매개

낮은 자존감은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Chaplin & John, 2007). 이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근본적 동기인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 있다(Chang & Arkin, 2002; Kasser & Kasser, 2001). 불안정한 자기 가치로 인해 개인은 자신의 특성, 목표 또는 미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Baumgardner, 1990; Morrison & Johnson, 2011). 불편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물질을 획득하려고 시도한다. 즉, 자존감은 물질주의를 고취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자기 의심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질주의자 대부분은 어릴 적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으로 인해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 진정한 자아의 실현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이와 같은 아동기 경험은 낮은 자존감과 조건적인 자기감(contingent sense of self)을 형성하도록 만든다(Kasser & Kasser, 2001). 조건적 자기감이란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 규준에 부합하는 것과 같은 외적 조건에 기반을 둔 자기 가치의 평가를 의미하며(Deci & Ryan, 1995), 외부 상황에 의해 쉽게 변화한다. 불안정한 조건적 자기감을 회복하기 위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공허한 자아를 외재적인 소유물로 보상하는 물질주의를 추구하기도 한다(Nagpaul & Pang, 2017).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에 좌절하고, 이들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까 봐 지나치게 염려하며 결과적으로 자기 비난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Ashby & Rice, 2002; Rice & Dellwo, 2002). 완벽이라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과도하게 노력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낮은 자존감뿐만 아

나라 생산성 저하, 건강악화, 자기 통제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Burns, 1980).

자존감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설명하는 매개 변인이기도 하다(Preusser et al., 199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한 평가 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가 높은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이때 부적응적 대처 방식과 낮은 자존감이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Heppner, & Lee, 2010). 중국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존감과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낮은 삶의 만족을 예측하였다(Chen et al., 2017).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 Donnelly 등(2016)이 제시한 이론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자존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성차에 관해 밝힌 선행연구가 없는 반면 물질주의는 남성보다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물질주의 성향 자체는 남성에게서 더 높게 관찰된다(Segal & Podoshen, 2013).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온 남성의 물질주의 추구는 여성보다 더 용인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물질주의 추구로 인해 덜 고통받는다(Dittmar et al., 2014; Gilman, 1999).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는 외모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의 추구로 이어지기 쉽다(Grouzet et al., 2005; 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이로 인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이미지 같은 외적 요인에서 찾게 되면서(Dittmar, 2008; 2011)

불안, 우울, 섭식장애 등을 더 경험하게 된다(Dittmar et al., 2014).

자존감의 성차는 초기 청소년기부터 일관되게 나타난다(Orth, Robins, & Roberts, 2008). 여러 국가 전반에 걸쳐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존감이 더 높으며 이러한 성차는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성인기 초중반까지 지속된다(Bleidorn et al., 2016). 특히 성인 초기 여성은 타인의 평가에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기 쉽다(Robins & Trzesniewski, 2005).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와 낮은 자존감에 취약한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Donnelly 등(2016)은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이 자기혐오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자기혐오에서 비롯된 정서적 고통, 인지적 와해에 대한 결과로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혐오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 중 1단계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2단계인 낮은 자존감이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과정을 중단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Baumeister(1990)가 ‘자기로부터의 도피’ 수단으로 개인이 자살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것과 같이 Donnelly 등(2016)도 1단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물질주의를 예측하기보다 이후 단계를 통해 물질주의를 예측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단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물질주의에 대한 직접효과는 가정하지 않고 2단계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간접효과만을 가정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성격특질로(Hewitt & Flett, 1991) 변화를 가정하지 않고 한 시점만 측정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물질주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예측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첫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초기값을 매개로 물질주의 초기값을 설명하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같은 시기의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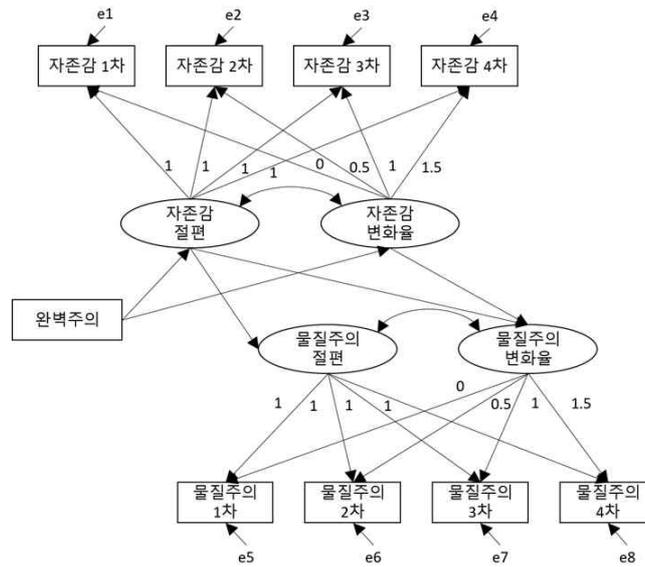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자존감 변화율을 매개로 물질주의 변화율을 설명하여, 한 시점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다면 도피이론 1단계와 2단계로 이어지는 가설에 따라 이후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를 매개로 물질주의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가치추구와 정신건강 관련 변인을 밝히기 위해 시행된 ‘성인 초기 여성의 생애 가치와 정신건강 연구’의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인 초기 여성의 생애 가치와 정신건강 연구’는 2015년 9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5년 9월 서울 및 수도권

7개 대학에 온라인 설문 참여를 안내하는 연구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공고를 보고 참여 의사를 밝힌 18세에서 31세 성인 여성 571명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2차 설문에 관한 안내는 추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차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 후에 이메일로 하였으며 3, 4차 설문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하였다. 모든 차수에서 설문을 실시한 참여자들에게 5천원 상당의 음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1차 설문 참여자 중 성별을 불분명하게 표시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570명이었다. 1차시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64세($SD = 2.28$)였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 513명(90%), 대학교 졸업 18명(3.2%), 석사 재학 30명(5.3%), 석사 졸업 6명(1.1%), 기타 3명(0.5%)이었다. 직업은 대부분이 학생(94.9%)이었다. 2차 설문 참여자는 452명(1차 설문 기준 유지율: 79.3%), 3차 설문 참여자는 398명(69.8%), 4차 설문 참여자는 342명(60%)이었다.

측정도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 과 Flett(1991)이 개발하고 한기연(1993)이 번역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사용하였다. Hewitt과 Flett (1991)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3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로 알려져 있으며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 승인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5문항(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1차시기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였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역한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예: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예: 때때로 나는 구제 불능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식 척도(1 = 매우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1-4차 자존감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7에서 .90의 범위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를 한국어로 타당화한 유지혜와 설경옥(2018)의 한국어판 물질주

의 가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개 문항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지를 측정하는 성공판단 6문항(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소유중심 7문항(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지를 측정하는 행복추구 5문항(예: 더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도 18개 문항에 대한 물질주의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이며 높은 점수는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1-4차 물질주의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에서 .89의 범위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21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각 차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로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상관분석으로 주요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 물질주의의 종단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며 변화 형태의 개인차, 이러한 개인차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홍세희, 유숙경, 2004). 우선, 자존감과 물질주의 각각에 대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무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 단계에서는 네 차례 반복 측정된 각 변수의 잠재성장요인을 추정하여 변화 형태를 확인한다. 잠재성장요인은 절편과 변화율의 평균

과 분산을 의미한다. 분석 과정에서 절편의 요인계수는 모두 1로 고정하고, 절편을 초기값으로 해석하기 위해 변화율의 요인계수 중 1차를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변화율 의미를 연간 변화율로 해석하기 위해 6개월이라는 측정 간격에 맞춰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0, 0.5, 1, 1.5로 부여한 후 잠재성장요인을 추정하였다. 잠재성장요인 중 평균은 연구대상의 자존감과 물질주의의 평균적인 초기값과 변화율을 나타내므로 초기값의 평균은 1차에 측정된 자존감과 물질주의의 평균을 의미하고 변화율의 평균은 자존감과 물질주의에서 개인 변화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분산은 자존감과 물질주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를 나타낸다.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근사 적합도 지수인 CFI가 .95 이상, RMSEA가 .08 이하, SRMR이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다음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 초기값과 변화율, 물질주의 초기값과 변화율 변수를

투입하여 병렬과정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Cheong, MacKinnon, & Khoo, 2003)을 분석하였다.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10000회 반복 추출)을 실시하였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도와 첨도 값은 모든 변수에서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8 미만으로 정상 분포의 범위 내에 속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분석 결과 1차시기에 측정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4차에 걸쳐 측정된 자존감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4차에 걸쳐 측정된 물질주의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4차에 걸쳐 측정된 자존감의 상관계수 절대값(.43

표 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1-4차), 물질주의(1-4차)의 기술통계 및 상관

| | <i>N</i> | 평균(<i>SD</i>) | 왜도 | 첨도 | 완벽주의 | 자존감 1 | 자존감 2 | 자존감 3 | 자존감 4 | 물질주의1 | 물질주의2 | 물질주의3 |
|-------|----------|-----------------|-------|-------|--------|--------|--------|--------|--------|-------|-------|-------|
| 완벽주의 | 556 | 2.89(0.59) | 0.27 | 0.26 | | | | | | | | |
| 자존감1 | 557 | 3.50(0.65) | -0.30 | -0.12 | -.45** | | | | | | | |
| 자존감2 | 452 | 3.49(0.66) | -0.53 | 0.01 | -.45** | .76** | | | | | | |
| 자존감3 | 398 | 3.45(0.66) | -0.29 | -0.44 | -.43** | .74** | .74** | | | | | |
| 자존감4 | 342 | 3.47(0.70) | -0.52 | -0.14 | -.44** | .72** | .75** | .81** | | | | |
| 물질주의1 | 557 | 3.04(0.57) | -0.32 | 0.02 | .27** | -.24** | -.24** | -.15** | -.17** | | | |
| 물질주의2 | 452 | 3.10(0.56) | -0.21 | 0.00 | .31** | -.23** | -.26** | -.16** | -.20** | .76** | | |
| 물질주의3 | 398 | 3.12(0.60) | -0.28 | 0.24 | .27** | -.22** | -.24** | -.23** | -.20** | .71** | .79** | |
| 물질주의4 | 342 | 3.11(0.59) | -0.05 | 0.08 | .28** | -.19** | -.23** | -.23** | -.27** | .67** | .73** | .83** |

** *p* < .01

~ .45)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4차에 걸쳐 측정된 물질주의의 상관계수(.27 ~ .31)보다 더 크게 나타나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존감과 물질주의 변화

자존감 종단 변화를 선형 변화로 가정하여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 평가 결과, χ^2 값이 유의하지 않고($p = .42$) CFI는 1.0, RMSEA는 0, SRMR은 .04로 모형이 자료를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분석 결과 자존감 선형 변화 모형의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평균은 각각 3.5와 -0.04이고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값과 선형변화율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고, 이는 자존감의 종단 변화 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 = .38$), 1차시기 자존감 점수와 이후의 선형변화율은 서로 관계가 없음을 나타냈다.

물질주의 종단 변화 역시 선형 변화로 가정하여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 평가 결과, χ^2 값은 유의하나($p = .01$) 그 밖의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인 CFI는 0.99, RMSEA는 .06 SRMR은 .05로 모형이 자료를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분석 결과 물질주의 선형 변화 모형의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평균은 각각 3.05와 0.05이고 선형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값과

선형변화율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고, 이는 물질주의의 종단 변화 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 = .12$), 1차시기 물질주의 점수와 이후 선형변화율은 서로 관계가 없음을 나타냈다. 자존감과 물질주의 선형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추정치 결과는 표 2와 같다.

완벽주의와 물질주의 관계에 대한 자존감 매개

성인 초기 여성의 자존감과 물질주의가 시간에 따라 선형 변화한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완벽주의, 자존감 변화, 물질주의 가치추구 변화 간 경로를 추가하여 병렬과정 매개모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FI가 0.99, RMSEA가 .05, SRMR이 .05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냈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을 통해 검정하였다.

자존감과 물질주의는 개별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자존감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r = -.09, p = .41$), 물질주의 초기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r = -.08, p = .48$). 예측 변수로 투입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존감 초기값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했지만($b = -0.49, p < .001$), 자존감 선형변화율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b = -0.004, p = .89$).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같은 시기에 측정된 자존감

표 2. 자존감과 물질주의 선형잠재성장모형의 모형 적합도와 성장계수 추정치

| 변수 | 모형 적합도 | | | | 초기값 | | 선형변화율 | | 상관 |
|------|--------------|------|-------|------|--------|--------|--------|--------|------|
| | $\chi^2(df)$ | CFI | RMSEA | SRMR | 평균 | 분산 | 평균 | 분산 | |
| 자존감 | 5.00(5) | 1.00 | .00 | .04 | 3.50** | 0.32** | -0.04* | 0.05** | -.09 |
| 물질주의 | 14.81(5)* | 0.99 | .06 | .05 | 3.05** | 0.25** | 0.05** | 0.05** | -.14 |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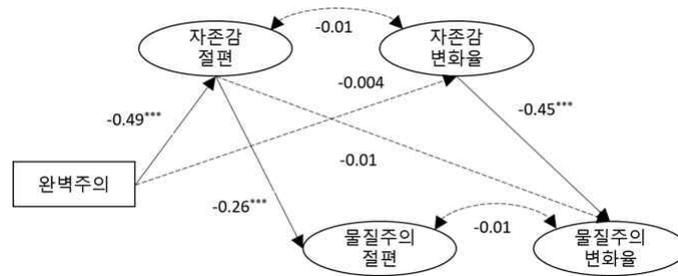


그림 2. 연구 결과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추정치,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5$, ** $p < .01$, *** $p < .001$

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이후 1.5년간 변화율의 개인차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설명되지 않았다. 자존감 초기값은 물질주의 초기값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했지만($b = -0.26, p < .001$), 물질주의 선형변화율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b = -0.01, p = .70$). 즉, 1차시기에 측정된 자존감이 높을수록 같은 시기 물질주의는 유의하게 낮았으나, 이후 1.5년간 변화율의 개인차는 자존감 초기값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자존감 변화율은 물질주의 변화율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 = -0.45, p = .001$). 앞선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즉 1.5년간 자존감은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물질주의 추구는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고려하면, 자존감의 감소하는 기울기가 낮을수록(천천히 감소) 물질주의의 증가하는 기울기가 낮고(천천히 증가), 반대로 자존감의 감소하는 기울기가 클수록(빠르게 감소) 물질주의의 증가하는 기울기가 크게 나타났다(빠르게 증

가). 그림 2에 물질주의와 자존감의 선형 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변수와 오차항을 제외하고 잠재변수 간 경로도만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 각 경로계수의 비표준화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매개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 초기값 관계에서 자존감 초기값의 매개 효과는 Bootstrapping 검정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정적이었다($b = 0.13, 95\% \text{ Bias-Corrected CI} = [0.08, 0.18]$).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같은 시기의 물질주의 추구 경향이 높은데, 이는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물질주의 추구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물질주의 변화율의 관계에서는 자존감 초기값, 자존감 변화율, 그리고 자존감 초기값과 변화율의 순차적인 매개 경로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 경로 | 비표준화 계수 |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 | |
|---------------------------|---------|-------------------------|-------|
| | | 하한 | 상한 |
| 완벽주의 → 자존감 절편 → 물질주의 절편 | 0.128 | 0.082 | 0.178 |
| 완벽주의 → 자존감 절편 → 물질주의 변화율 | 0.006 | -0.035 | 0.036 |
| 완벽주의 → 자존감 변화율 → 물질주의 변화율 | 0.002 | -0.025 | 0.058 |

논 의

한국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한 개인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Donnelly 등(2016)이 제시한 도피이론의 1단계, 2단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한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이 같은 시기의 자존감과 물질주의를 예측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존감 변화율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과 물질주의 변화율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횡단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초기값은 자존감 변화율을 예측하지 못해 종단적인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못했으나, 자존감 변화율은 물질주의 변화율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도피이론의 1단계 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2단계 변인인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 가치추구를 예측하였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이 사회가 부과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좁힐 수 없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차이로 인해 좌절하며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orney, 1950).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물질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Nagpaul & Pang, 2017; O'Guinn & Faber, 1989). 도피이론에 따르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진 개인은 그 기준으로 자신이 평가된다고 지각하며, 그 기준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

을 비난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Donnelly et al., 2016). 이 연구는 사회가 부과한 비현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개인은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물질로 보상하기 위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통계적으로 자존감이 더는 낮아질 수 없는 바닥 효과(floor effect)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Leary, Haupt, Strausser, & Chokel, 1998). 한 시점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 때 자존감 역시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았던 그 시점에서 자존감이 더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이미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후 낮은 자존감을 예측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둘째, 이론적으로 자존감은 시간 경과에도 안정적인 수 있다. 자존감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 수준과 자존감 안정성은 독립적이다(Kernis & Waschull, 1995). 자존감 안정성은 자존감의 순간적인 변동 정도로 정의되는데(Kernis, 2005),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자존감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또한, 외현적 자존감과 내현적 자존감이 모두 높은 경우 안정적이고 강한 자존감을 보일 수 있다(Kernis, 2003; Noser & Zeiger-Hill, 2014). 한국 중학생의 자존감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역시 3년 동안 자존감 변화가 유의하지 않고 안정적이었다(임효진, 이지은, 2016). 북미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변화가 있었던 집단도 있지만 없었던 집단도 관찰되어 개인차가 밝혀졌다(Hirsch & DuBois, 1991). 즉, 자존감의 변화 양상은 개인이나 문화, 혹은 측정 간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자존감의 변화를 일관되게 예측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간격이 변동 없이 일

정하게 유지된다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따라 자존감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이상적인 높은 기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일정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게 된다(Hewitt & Flett, 2002). 따라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한” 자기와 현실의 자기 사이의 간격이 크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부정적 자기평가와 자기비난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인해 더 낮아질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수 있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어떠한 성취를 경험한다고 해도 타인의 성취를 기준으로 자신의 성취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항상 현실과 이상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Donnelly et al., 2016; Mandel, Petrova, & Gialdini, 2006). 즉, 사회가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자존감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 그리고 물질주의 간 종단적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존감 변화율이 물질주의 변화율을 예측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물질주의 추구 경향은 더 높아진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낮은 개인은 불안정성과 자기 의심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공허한 자아를 외재적인 물질주의를 통해 보상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Nagpaul & Pang, 2017). 또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불편감을 유발하게 되는데(Kasser & Kasser, 2001),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체성과 관련된 물질을 획득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즉, 낮은 자존감은 더 높은 소비 욕구와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높은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Bjerke & Polegato, 2006). 특히 자존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

기 위해 자신을 꾸미거나 과시할 수 있는 물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Lee, Lennon, & Rudd, 2000).

이 연구는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밝힌 학술적 의의가 있다. Donnelly 등(2016)은 도피이론을 통해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과 기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 연구는 물질주의 추구를 도피이론으로 검증하기 위해 물질주의와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존감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성이 검증되었고, 이를 통해 도피이론의 일부 단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자존감이 물질주의 가치추구를 강화하는 요인임을 종단적으로 밝혀, 한국 사회에서 성인 초기 여성의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높아진다는 방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사회의 성인 초기 여성에게서 자존감이 물질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임을 밝힌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과도한 경쟁과 성취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과 성인 초기 대학생이 겪는 학업, 업무, 취업에서의 실패와 어려움은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트라우마로 기억될 만큼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다(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특히 여학생은 진로선택이나 취업 등에서 남학생보다 진로 장벽을 더 많이 인식하고 더 큰 불안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에 더 취약하다(신현규, 장재윤, 2003).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실패와 좌절로 인해 낮은 자기가치감을 더 경험하기 쉬운(Brown & Dutton, 1995) 여성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변인으로 알려진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궤적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의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남성, 다양한 문화, 그리고 여러 발달 단계에서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이 물질주의에 더 취약하지만 물질주의 성향 자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Segal & Podoshen, 2013). 또한, 아동기에 높았던 자존감은 청소년기에 낮아졌다가 성인기 전반에 걸쳐 점차 증가하는 등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 궤적이 다르며 (Robins & Trzesniewski, 2005), 자존감은 문화마다 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정옥, 한규석, 2005; Bleidorn et al., 2016) 문화에 따라서도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물질주의 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자기개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로 물질주의 가치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추구는 청소년 범죄, 비행 행동 등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백지숙, 박성연, 2004; 전귀연, 1998). 치열하고 경쟁적인 한국사회의 입시 문화에서 청소년은 물질주의 가치를 더욱 쉽게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을 방해하고 심리적 안녕은 물론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이다(김유나, 설경옥, 박선영, 2017).

둘째, 이 연구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경제 성장을 거쳐 온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실시된 연구라는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국사회는 근현대 시대 급격한 사회 변동과 단기간의 경제 성장을 겪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과열경쟁, 과도한 물질주의 그리고 심각한 빈부 격차 문제를 갖고 있다(최인숙, 2013). 이러한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도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지 혹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인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물질주의 가치추구 강화를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일한 대상자에게 네 차례 반복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궤적을 추론할 수 있었지만, 1.5년 자료 수집 기간은 자존감과 물질주의의 변화를 감지하기에 다소 짧은 기간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추가적인 종단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상관관계 연구가 지닌 한계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존감 그리고 물질주의 간 명확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자존감의 변화와 물질주의의 변화 간 방향성을 검증했지만 명확한 인과 관계는 실험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피이론 모형의 전 단계가 아닌 일부 단계를 적용해 개인이 물질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Donnelly 등(2016)이 제시한 도피이론은 순차적인 단계를 통해 물질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를 먼저 검증해 보았지만,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도피이론 원형에 가까운 구조로 검증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자기혐오 단계, 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단계, 그리고 이를 피하려고 인지적으로 해체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단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변인을 설정하여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물질주의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과정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 연구는 Donnelly 등(2016)이 제시한 물질주의를 설명하는 도피이론 모형 6단계 중 1단계와 2단계를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물질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성인 초기 여성은 낮은 자존감을 매개로 물질주의 가치를 더욱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더 높아졌다. 이 연구는 자존감이 물질주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성인 초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변인인 물질주의가 강화되는 궤적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825-846.
- 김유나, 설경옥, 박선영 (2017).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 237-268. doi:10.14816/sky.2017.28.3.237
- 백지숙, 박성연 (2004).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 119-129.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 671-701.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 875-896. doi:10.20406/kjcs.2017.11.23.4.475
- 신현규, 장재운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815-827.
- 오현옥 (2011). 생활체육 참여자의 다차원 완벽주의가 운동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0, 263-274.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 385-410. doi:10.20406/kjcs.2018.8.24.3.385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임효진, 이지은 (2016). 중학생의 자존감, 자기통제 및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 315-335. doi:10.22251/jlcci.2016.16.12.315
- 전귀연 (1998). 가족 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 87-103.
- 전명임, 이희경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 67-83.
- 정 옥,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199-216.
- 정인호, 이은진 (2013). 일중독성향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자기효능감, 완벽주의 그리고 조직몰입 및 직무소진과 일중독성향의 상관성. *한국경영교육학회*, 28, 364-384.
- 조규준, 송수진 (2017). 일중독과 물질주의가 브랜드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20, 97-112. doi:10.17053/jcc.2017.20.3.006
- 최인숙 (2013). 한국과 일본의 탈물질주의. *아세아연구*, 56, 233-264.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유숙경 (2004). 다변량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17, 131-146.
- Ashby, J. S., & Rice, K. G. (2002). Perfectionism,

-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197-203. doi:10.1002/j.1556-6678.2002.tb00183.x
- Bardone-Cone, A. M. (2006).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imensio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5, 1977-1986. doi:10.1016/j.brat.2006.10.004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doi:10.1037/0033-295X.97.1.90
-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1072. doi:10.1037//0022-3514.58.6.1062
- Belk, R. W.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280. doi:10.1086/208515
- Bjerke, R., & Polegato, R. (2006). How well do advertising images of health and beauty travel across cultures? A self-concept perspective. *Psychology & Marketing*, 23, 865-884. doi:10.1002/mar.20137
- Bleidorn, W., Arslan, R. C., Denissen, J. J., Rentfrow, P. J., Gebauer, J. E., Potter, J., & Gosling, S. D. (2016).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cross-cultural windo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 396-410. doi:10.1037/pspp0000078
- Brown, J. D., & Dutton, K. A. (1995). The thrill of victory, the complexity of defeat: Self-esteem and people's emotional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712-722. doi:10.1037/0022-3514.68.4.71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Burns, D. D. (1980, November).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 34-52.
-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 Marketing*, 19, 389-406. doi:10.1002/mar.10016
- Chaplin, L. N., & John, D. R. (2007). Growing up in a material world: Age differences in material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 480-493. doi:10.1086/518546
- Chen, L., Zhong, M., Cao, X., Jin, X., Wang, Y., Ling, Y., . . . Yi, J. (2017). Stress and self-esteem medi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categories of perfectionism and life satisfaction.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2, 593-605. doi:10.1007/s11482-016-9478-3
- Cheong, J., MacKinnon, D. P., & Khoo, S. T. (2003). Investigation of mediational processes using 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 238-262. doi:10.1207/S15328007SEM1002_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doi:10.1037/1082-989X.1.1.16
- Deci, E. L., & Ryan, R. M. (1995). Human autonomy: The basis for true self-esteem.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31-49). New York, NY, US: Plenum Press. doi:10.1007/978-1-4899-1280-0_3
- Dittmar, H. (2005). Compulsive buying—a growing concern? An examination of gender, age, and endorsement of materialistic values as predictor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6, 467-491. doi:10.1348/000712605X53533
- Dittmar, H. (2008). *Consumer culture, identity and*

- well-being: The search for the "good life" and the "body perfect."* Hove, England: Psychology Press.
- Dittmar, H. (2011). Material and consumer identities.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745-769). New York, NY, US: Springer. doi:10.1007/978-1-4419-7988-9_31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 879-924. doi:10.1037/a0037409.
- Donnelly, G. E., Ksendzova, M., Howell, R. T., Vohs, K. D., & Baumeister, R. F. (2016). Buying to blunt negative feelings: Materialistic escape from the self.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0*, 272-316. doi:10.1037/gpr0000078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68. doi:10.1016/0191-8869(91)90132-U
- Gilman, N. (1999). Thorstein Veblen's neglected feminism. *Journal of Economic Issues, 33*, 689-711. doi:10.1080/00213624.1999.11506193
- Grouzet, F. M.,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 . .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00-816. doi:10.1037/0022-3514.89.5.800
- Guðnadóttir, U., & Garðarsdóttir, R. B. (2014). The influence of materialism and ideal body internalization on body-dissatisfaction and body-shaping behaviors of young men and women: Support for the Consumer Culture Impact Model.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5*, 151-159. doi:10.1111/sjop.12101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doi:10.1037/0022-3514.60.3.456
- Hewitt, P. L., & Flett, G. L. (2002). Perfectionism and stress processes in psychopatholo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55-284).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0458-011
- Hirsch, B. J., & DuBois, D. L. (1991).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The identification and prediction of contrasting longitudinal traject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53-72. doi:10.1007/BF01537351
- Horney, K. (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The struggle toward self-realization*. Oxford, England: W. W. Norton. doi:10.4324/978131501052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Kasser, T., & Kasser, V. G. (2001). The dreams of people high and low in materialism.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 693-719. doi:10.1016/S0167-4870(01)00055-1
- Kasser, T., Ryan, R. M., Zax, M., & Sameroff, A. J. (1995). The relations of mater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07-914. doi:10.1037/0012-1649.31.6.907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

- 1-26. doi:10.1207/S15327965PLI1401_01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1569-1605. doi:10.1111/j.1467-6494.2005.00359.x
- Kernis, M. H., & Waschull, S. B. (1995). The interactiv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Research and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7, pp. 93-14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doi:10.1016/S0065-2601(08)60404-9
- Leary, M. R., Haupt, A. L., Strausser, K. S., & Chokel, J. T. (1998). Calibrating the sociomet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appraisals and the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90-1299. doi:10.1037/0022-3514.74.5.1290
- Lee, J. H., & Hwang, J. (2011). Luxury marketing: The influences of psychologic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attitudes toward luxury restau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0*, 658-669. doi:10.1016/j.ijhm.2010.12.001
- Lee, S., Lennon, S. J., & Rudd, N. A. (2000). Compulsive consumption tendencies among television shopper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8*, 463-488. doi:10.1177/1077727X00284003
- Lyonski, S., & Durvasula, S. (2013). Consumer decision making styles in retailing: Evolution of mindsets and psychological impact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30*, 75-87. doi:10.1108/07363761311290858
- Mandel, N., Petrova, P. K., & Cialdini, R. B. (2006). Images of success and the preference for luxury brand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6*, 57-69. doi:10.1207/s15327663jcp1601_8
- Morrison, K. R., & Johnson, C. S. (2011). When what you have is who you are: Self-uncertainty leads individualists to see themselves in their posse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639-651. doi:10.1177/0146167211403158
- Nagpaul, T., & Pang, J. S. (2017). Extrinsic and intrinsic contingent self-esteem and materialism: A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Psychology & Marketing, 34*, 610-622. doi:10.1002/mar.21009
- Noser, A., & Zeiger-Hill, V. (2014). Self-esteem instability and the desire for fame. *Self and Identity, 13*, 701-713. doi:10.1080/15298868.2014.927394
- O'Guinn, T. C., & Faber, R. J. (1989). Compulsive buying: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 147-157. doi:10.1086/209204
- Orth, U., Robins, R. W., &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695-708. doi:10.1037/0022-3514.95.3.695
- Park, H. J., Heppner, P. P., & Lee, D. G. (2010). Maladaptive coping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469-474. doi:10.1016/j.paid.2009.11.024
- Preusser, K. J., Rice, K. G., & Ashby, J. S. (1994). The role of self-esteem in mediating the perfectionism-depression conne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88-93.
- Rice, K. G., & Dellwo, J. P. (2002). Perfectionism and self-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188-196. doi:10.1002/j.1556-6678.2002.tb00182.x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doi:10.1086/209304
-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158-162. doi:10.1111/j.0963-7214.2005.00353.x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gal, B., & Podoshen, J. S. (2013). An examination of materialism, conspicuous consumption and gender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7*, 189-198. doi:10.1111/j.1470-6431.2012.01099.x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doi:10.1037/1082-989X.7.4.422
- Sirgy, M. J. (1998). Materialism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 227-260. doi:10.1023/A:1006820429653
- 1 차원고접수 : 2018. 10. 17.
수정원고접수 : 2019. 01. 21.
최종게재결정 : 2019. 02. 21.

Escape Theory and Materialism: A Longitudinal Analysis of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Among Young Adult Women

Kyoung Ok Seol Min Kyung Park EunJi Ahn Jiyoung Kim Sang Eun Baek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psychological procedures that explain one's pursuit of materialism. We employed Donnelly et al.'s (2016) application of the Escape Theory to Materialism. The first step is having unrealistic and overly high standards of life, as measured b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The second step is the development of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self for not meeting high standards, as measured by low self-esteem. We hypothesized that initial and decrease of self-esteem over time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initial and increase in materialism. A total of 571 young adult women completed surveys four times over one and a half years. Cross-sectionally, low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materialism at time 1. Longitudinally, we only found that as self-esteem lowered over time there was an increase of materialism. Materialism is an important variable to understand Korean young adult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These results provided understanding of how Korean young adult women reinforce materialism over time.

Key words : Materialism, self-estee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escape theory, parallel process mediation model